

제리차 해익어촌어항어장조사를 다녀와서



정익한
(주)세광종합기술단 이사

1. 머리말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외선진국의 어촌어항과 시책 및 어항정비 환경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어촌어항협회 임직원,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선발된 20명은 출발 전 23일에 시찰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의실에 모였다. 시찰단은 시찰단장과 운영위원 등을 선출하고 함께할 시찰단간에 통성명을 하고 2차 어항시찰단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일행 중 멀리 남해에서 출발하여 도착하신 분들은 24일 새벽 6시 출발을 위하여 인천 국제공항 인근에서 하루를 묵어야 하는 것에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시찰단원 대부분의 연고지가 지방이어서인지 대체로 반갑게 통성명을 나눈 뒤 헤어졌으며 다음날 인천공항에 모여 출국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시찰하려는 일본과 북유럽은 어항, 해양위락, 항만 등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로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다항, 베트남시 가메가와항을 방문하면서 이들에 걸친 관계자들의 설명과 토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의 북유럽은 해양도시로서 지역주민들의

삶속에 육상과 해상이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있어 시찰내내 감탄과 부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2. 일본어항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약 1시간 30분여 만에 간단한 입국수속을 마치고 후쿠오카 공항에 일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방문지인 시내의 하카다항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중소도시와 같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카다항에 도착하니 후쿠오카시 농림수산물수산부 경영강화 계장인 나카무라상, 어항과 관리계장인 쿠라우치상, 어항과 계획계장인 모리상 및 관광부 소속인 히로시상 등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회의실로 이동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 최익영 전무님과 시찰단장님의 인사소개가 있는 후 현지 관계자분들이 준비한 설명 자료를 통하여 하카다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찰단원들의 어항 관련 질의와 토론이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하카다항은 계류시설이 2,664m이며, 야적장 및 어구보관시설 등 어항시설용지가 150,000㎡에 달하는 규모로 실



》》 해외어촌어항어장조사를 다녀와서 《《



▲ 하카다항 전경



▲ 하카다항 수산관계자와의 자료설명 및 토의

이용 어선수는 약 1,300척에 달한다.

현재는 제2차 어항정비 장기계획(2007~2011년)에 근거해 후쿠오카현 바다지진에 대비한 계류시설의 재해복구사업과 병행해 노후화된 계류시설의 개량, 어항의 기능보완 시설의 개량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산물 유통거점 어항으로서 생산·유통의 효율화, 품질·위생관리 등의 시설장비나 재해시에 있어도 안정된 수산물 유통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류시설의 내진강화 안벽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일본이 지진재해가 많은 나라임을 느낄 수 있었으며 준비도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카다항에 대한 설명 및 토의를 끝내고 중앙선어시장 본관에 위치한 전망대에 올라갔다. 하카다항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는데 주변도시와 어항시설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어항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망대 내부에서 초등학교생들의 미래 바다속 생

활에 대한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이란 나라는 바다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카다항 시찰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오이타현 벳부시로 출발하기 위하여 버스에 올라서 차창 밖으로 내다보니 버스가 출발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본 측 관계자분들께서 계속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산중턱에 있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벳부시를 바라보니 건물 사이사이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이 한국처럼 동네마다 목욕탕이 무한이도 많구나 생각되어 Guide에게 물어보니 자연온천인데 가정집에서도 온천욕 및 열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이 왜 그리 많이 찾는지를 알 수 있었다.

호텔에 들어가기 전 벳부시에서 유행천 관광지인 해지옥 및 피의 지옥 등을 둘러볼 수 있었으며 죽탕에서는 잠시나마 관광 여독을 풀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가 투숙한 벳부시 스키노이호텔을 출발하여 벳부시에 있는 가메가와항을 방문하였다.

가메가와항은 하카다항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인지 시찰단을 안내한 곳은 어업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2층 식당이었다. 아침이라 다행히 손님이 없어서 벳부시 농림수산과 과장님인 우메키상, 어시장 사장님인 니시무라상, 어업



▲ 생선을 주제로한 입상작 전시(생선보급추진위원회 개최)



▲ 가메가와항의 물양장 전면 전경

협동조합 이사님인 마카지리상 등을 소개받은 뒤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명 및 토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가메가와항은 한국에서라면 지방어항 정도의 규모여서 친숙하게 느껴졌으나 특이한 점은 한국에서처럼 어항배후에 횃집 등이 없어서 그런지 청정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설명 중에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어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들을 수 있었으며 추후 한·일 공동문제로서 해소방안을 협의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다.

벳부시에 있는 가메가와항은 배후에 유수의 온천과 풍부한 풍경이 있는 국제적인 온천관광도시로 벳부지역의 국제화의 진전, 점점 다양화되는 여가(Recreation)활동, 도시환경 개선 등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화,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의 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근간에 친숙한 어항 만들기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어항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소하며 재정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하니 우리나라도 본받을 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3. 핀란드

세 번째 방문지인 핀란드 헬싱키는 일본에서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야하는 매우 긴 여정 끝에 도착했다.

헬싱키에 도착하니 거의 저녁 11시쯤(한국시간 오후 4시) 되었으며 레디슨 호텔에 도착하여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라 그런지 호텔직원들이 호텔현관을 잠궤 놓고 있어서 가이드가 전화하여 열쇠를 받고 나서야 각자의 호텔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북유럽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번일정에서 첫 국가 방문이라 그런지 룸메이트와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도 새벽 6시에 눈이 떠져 간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같이입고 호텔주위를 둘러보았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북유럽에 체인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레디슨 호텔은 바다만 입구에 위치한 2층 건물로 숲에 둘러싸여 경치가 매우 좋았으며 주변 숲은 한국의 가을 끝을 연상시킬 정도로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다.

산책 후 호텔로 돌아오니 일행 중 부지런한 분들은 식사를 벌써 마치고 다음 목적지 출발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랴 부랴 조식을 하고 출발시간을 맞추었다.

헬싱키항으로 오는 동안 세계적인 휴대전화 제조사인 노키아 본사를 볼 수 있었다.

헬싱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핀란드의 수도로 핀란드만에 돌출한 작은 곳과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구 정면으로는 대통령 관저와 시청사, 대성당이 높은 수준의 석조 건축미를 웅장하게 과시하고 있었다.

국내의 아기자기한 건축미와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도시민 자체가 역사도시 속에서 자연스런 생활상을 이어가고 있는 듯이 차분하게 느껴졌다.

시 속에 헬싱키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만과 동시에 핀란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아래의 대성당 건물은 교회 건물로 루터교의 총본산 건물이며 내부는 휘황찬란한 상들이리가 설치되어 있다.

위 사진 속 원로원 광장은 대성당과 마주보고 있으며 동쪽은 관청, 서쪽은 헬싱키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헬싱키항은 유럽대륙 각국의 수도 중 가장 북쪽에 위치



하고 있어 인근의 폴란드, 독일, 스웨덴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무역과 관광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핀란드 총 수입물량의 1/2 이상이 헬싱키항을 거쳐 가며 대규모 수출항구가 들어서 있다.

또한 주변의 섬들을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의 발달로 해상교통 수단인 소형선과 개인요트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도시곳곳에 마리나(Marina)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움이 앞서기도 하였다.

점심은 한국식당에서 하였는데 유럽풍의 벽돌식 도로변에 태극마크 간판이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식당 입구에는 노무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헬싱키를 방문한 유명인사들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 일행 중 한 분이 우리도 유명인사 대열에 끼었다하여 식사 중 한바탕 웃기도 하였다.

헬싱키에 하나뿐인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넉넉한 인심의 주인 이주머니 덕분에 며칠 만에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점심식사 후 일행은 헬싱키 주변 해안을 따라 답사하는 일정을 가졌는데 가는 곳마다 마리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해안가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즐길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도록 친수시설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리나 시설 배후로는 육상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훌륭하게 정비된 주변지역을 둘러볼 수 있었다. 지역적 특성에서 우리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곳에서처럼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았다.

다음 목적지는 스웨덴 스톡홀름항으로 저녁에 크루즈선에 탑승하여 아침에 스웨덴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다. 저녁은 크루즈선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하는데 와인과 맥주가 무료제공이라 그런지 술 욕심 많은 나와 같은 테이블의 일행은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를 때까지 마신 후에야 선상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



▲ 대성당 전경



▲ 원로원 광장

4. 스웨덴

① 스톡홀름

선상호텔에서의 색다른 기분의 아침에 갑판으로 나가보았으나 위도상 북쪽이라 그런지 오전 8시가 되었음에도 주변은 어두웠으며 서서히 어둠이 크루즈선 뒤쪽으로 도망가듯 사라질 때가 되어서야 내가 탄 선박주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어두웠을 때에는 발틱해의 어디쯤이려니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다도해처럼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섬들 사이를 운항하고 있었다. 든든히 아침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겨 또 다른 새로운 목적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설레임을 안고 수속을 마친 뒤 스톡홀름항에 내렸다.

핀란드는 하루 종일 쏟아지는 이슬비와 바람 덕분에 손이 시릴 정도로 추워서 스톡홀름도 추울 줄 알고 복장을 단단히 준비하였는데 의외로 날씨가 청명하여 하루 종일



▲ 생선어시장과 주변 경관



▲ 친수시설 경관

후덥지근하게 보낼 것 같아 은근히 걱정되었다.

스톡홀름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로 물위에 있기 때문에 '물위의 아름다운 도시'란 이름답게 섬과 섬 사이에 석조교량이 있고 왕궁 및 시청사 등 석조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것이 매혹적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를 이룬 도시이다.

스웨덴의 관문인 스톡홀름은 발틱해와 마라렌(Malaren)호수가 만나는 곳에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환경이 깨끗해서 도시 한 가운데에서도 수영과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스웨덴이 보유한 호수는 약 9,000개이며, 섬은 24,000개나 된다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해안선 길이가 2,900km에 이른다. 이런 풍부한 해양자원에도 불구하고 기후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수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도시는 해안가에 군집하여 있었는데 시민을 위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워터프런트 정비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이 도시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② 예테보리

스웨덴의 서쪽 관문이자 제2의 도시인 예테보리는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최대의 조선업 중심지이며, 대규모 조선소가 위치해 있고 주요 산업으로 볼베어링, 자동차, 자기, 방직, 제지, 제분, 금속, 모공, 맥주 등의 공업이 성하기 때문에 이런 공업품 등을 수출하는 무역항으로 스웨덴의 중추항만이다.

예테보리 어항 및 항만 안내를 받기 위하여 시청사에 버스를 대기하고 있으며 주변 경관을 보니 문화와 가을단풍 그리고 가랑비가 한껏 운치를 자아내게 한다.

버스에 오른 가이드는 나이가 지긋하신 헬렌이란 분으로 시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 예테보리 어항 및 어시장을 방문하였으나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일부 가게는 문



▲ 스톡홀름 시청사 전경



▲ 스톡홀름의 도시 전경



》》 해외어촌어항어장조사를 다녀와서 《《



▲ 여객선부두의 친수시설

이 달혀있었고 일부는 마무리 하는 중인 듯 했다. 선박들도 어업활동 때문에 한산하게 느껴졌다.

항만시설 답사는 무역항이라 버스에서 내리지는 못하고 Bus-Tour로 만족해야했다. 답사 중 자동차 부두에 현대 자동차가 아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이드에게 수입이 많이 되느냐 물어보니 스웨덴 사람들은 현대차가 세계 우수 자동차와 견어보아도 품질 면에서 뒤지지도 않으며 타 회사보다 보증기간도 길어서 선호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경쟁의 바다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러웠다.

점심은 중국식당에서 하였는데 저녁에 단원들과 과음한 탓인지 중국음식 특유의 느끼함 때문에 요기만 간단히 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다음 목적지인 노르웨이에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해양박물관에 잠깐 들렸는데 해양국가답게 예테보리의 바다환경과 동일한 모습의 수족관을 만들어 해양생물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수족관은 있으나 국내 어종이 아닌 수입종을 전시한 것이 생각나 아쉬움이 남았다.

도심지 주변의 마린나 시설은 오래전부터 도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처럼 잘 정돈되어 있었다. 공항에서 출발하기 위해 탑승장에 도착하니 노르웨이 항공의 쌍발 소형기가 있어 설마 하였는데 우리가 탑승할 비행기라 하여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으나 한국에 무사히 돌아왔으니 이상은 없었나보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몰랐는데, 커피, 음료 서비스가

유료이며, 여승무원도 외국인 특유의 우람한 체격을 소유한 아주머니여서 국내 항공사의 미모의 스텝어디스와 객실서비스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 노르웨이

① 오슬로

오슬로에서는 특별한 항만시설이 없기에 견문을 넓히기 위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도심으로 가기 전, 1952년 동계 올림픽 스키점프 경기가 열렸던 홀멘콜른 스키점프대를 잠시나마 둘러볼 수 있었으며 세계적인 조각가 구스타브 비젤란의 작품이 야외 323,700㎡의 면적에 설치되어 있는 비젤란 조각공원을 둘러보았다. 웅장한 느낌도 느낌 이려니와 조각상 하나하나에 섬세하게 표현된 인간의 일생 및 모습을 감상하면서 조각가 비젤란의 위대함과 그러한 예술이 가능하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는 노르웨이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② 베르겐

베르겐 항만청 수산과장인 올라브씨와의 주어진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는 서둘러 약속시간 안에 항만청 건물 회의실에 도착한 후 노르웨이의 항만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바쁜 와중에



▲ 어항 물양장 전경



▲ 베르겐항 전경



▲ 어항 물양장

도 시간을 할애해준 올라브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베르겐은 노르웨이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연평균 275일 비가 내리는 지역이다. 마침 우리가 도착한 날도 비가와 지역의 전형적인 날씨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시찰단 일행은 빗속에서도 마지막 시찰지라 그런지 많은 것을 담아가려는 듯 보통의 시작한 날과 끝 날에 볼 수 있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올라브씨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어선수는 7,305척이며 그중 28m이상 수심에서 원양어선 240척의 어획량은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선박 대형화 및 장비의 개선으로 1인당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어 항만청에서는 어업종사자의 소득증가로 이해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30년 전에는 양식이 없었으나 현재는 연어, 송어 등 중국을 제외하면 최대의 양식국가라고 한다.

설명을 듣는 동안 느낀 점은 어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법적, 규칙적, 해양감시 및 감독, 정책 조율 등을 시행하되 산업, 연구관련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력 또는 정보교류를 통하여 동반자, 동업자로서의 대등한 위치에서 어민을 지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6. 맺음말

이번 21차 어항시찰을 통해 일본이나 북유럽권 국가들의 어항, 항만분야에 대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필자에게는 매우 뜻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단순 기능어항으로서 외국의 지역 정주어항처럼 도시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지 못한 현실이다. 이번 시찰을 통해 새로운 국내어항에는 도시계획과 연동한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해외선진어항, 환경을 고려한 항만시설의 우수한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환경의 강점은 무엇이며 개발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찰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전국의 수산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시찰지역 관계자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식과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기회가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항시찰을 전적으로 추진하여 주신 한국어촌어항협회에 감사드리며 필자가 (주)세광종합기술단 대표로 참석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이재완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